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진행된 새 조국건설시기 자력갱생의 투쟁기풍으로 비료공장들을 일떠세우기 위한 로동계급의 투쟁

리 순 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비료증산은 알곡증산의 기본담보입니다. 비료공장의 모든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은 있는 힘과 지혜와 기술을 다 바쳐 파괴된 공장을 빨리 복구정비하고 생산을 정상화하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전집》 제6권 519~520페이지)

비료는 곧 쌀이다. 농업생산은 비료와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으며 비료가 많을수록 그만큼 쌀을 많이 생산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새 조국건설시기 우리 나라 비료공업의 전반적실태와 혁명발전의 요구를 깊이 통찰하신데 기초하여 일제에 의하여 혹심하게 파괴된 비료공장들을 시급히 정리복구하며 비료생산에서 해방전수준을 넘어서는것을 비료공업부문의 기본과업으로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혁명적인 대책들을 세워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새 조국건설시기 비료공업부문앞에 나선 방대한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도들과 혁명적인 대책들은 해방직후의 복잡하고 어려운 조건에서도 파괴된 비료공장들을 시급히 복구하며 인민생활과 직결된 비료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일수 있는 확고한 담보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신 전투적과업을 받아안은 비료공업부문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새 조선의 주인된 자각과 높은 애국의 열의를 안고 자기들앞에 맡겨진 영예로운 과업을 자체의 힘으로 빛나게 수행하기 위한 힘찬 투쟁을 벌렸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진행된 새 조국건설시기 자력갱생의 투쟁기풍으로 비료생산을 다그치기 위한 비료공업부문 로동계급의 투쟁에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먼저 일제에 의하여 혹심하게 파괴된 비료공장들을 자체의 힘으로 빠른 시일안에 복구해낸것이다.

패망한 일제는 다른 산업시설들과 함께 비료공장들도 몽땅 파괴하고 달아나면서 조선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그것을 복구할수 없다느니, 류산탐우에 잡초만 무성할것이라느니 하면서 악담을 퍼부었다.

일제에 의하여 형체조차 알아볼수 없이 혹심하게 파괴된 비료공장을 기어이 자체의 힘으로 완전히 복구하여 비료를 많이 생산하는것은 우리의 전진을 달가워하지 않는 적들에게 된타격을 주고 건국사업을 다그쳐 조선사람자체의 힘으로 능히 자주독립국가를 세울수 있다는것을 세상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문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34(1945)년 12월초 몸소 흥남비료공장(당시)을 찾으시여 비료공업부문의 로동계급의 가슴속에 새 조선의 주인, 공장의 주인이라는 높은 자각을 심어주시였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로동계급은 혁명성이 강한 로동계급이라고 하시면서 이제는 동무들이 공장의 주인이라고, 비료가 있어야 쌀을 생산할수 있으며 쌀이 있어야 건국을 할수 있으므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공장을 완전히 복구하여야 한다고 간곡하게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 교시는 우리 나라 비료공업부문의 로동계급에 대한 크나큰 믿음의 표시였으며 새 조국건설에서 비료공업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을 밝힌 강령적 지침이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교시에서 크나큰 믿음을 받아안은 공장로동계급은 높은 건국열의를 안고 공장복구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그들은 짧은 기간에 포화기를 비롯한 중요한 기계설비들을 복구하고 하루에 350t씩의 비료를 생산하여 농민들에게 보내주었다.

바로 이러한 때인 주체35(1946)년 4월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또다시 이 공장을 찾으시어 로동자들앞에서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연설에서 홍남은 로동계급의 근거지이고 새 민주조선건설의 기지이며 조선의 생명선이라고 하시면서 로동자들의 역센 투쟁에 의하여 공장이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대하여 충심으로부터 경의를 표시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새 조국건설에서 모두가 로동영웅이 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홍남비료공장 로동계급앞에 나선 전투적과업을 제시하시고 그것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모두가 건국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당시 우리 나라 비료생산의 80%를 담당하고있던 홍남비료공장 복구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주체35(1946)년 11월 25일을 비롯하여 여러차례에 걸쳐 당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결정들을 채택하도록 하시였으며 주체35(1946)년부터 주체39(1950)년 6월 25일전까지 무려 4억 1 558만원(당시화폐)의 자금을 기본건설투자액으로 할당하도록 해주시는 조치를 취하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받아안은 비료공업부문의 로동계급은 가로놓인 모든 애로와 난관을 극복하고 공장을 자체의 힘으로 복구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게 되었다.

자력갱생의 불길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도도를 받은 홍남비료공장에서부터 세차게 타올랐다.

홍남비료공장복구에서 가장 어려운 대상의 하나였던 류산직장의 배소로를 복구하는데 떨쳐나선 류산직장의 로동계급은 그 축조경험이나 운전경험이 전혀 없었지만 대담하게 배소로를 해체하면서 크기와 형태가 서로 다른 내화벽돌 한장한장에 번호를 붙이고 그림을 그려나갔으며 지혜를 합쳐 끝내 복잡한 배소로의 축조비밀을 밝혀내고야말았다.

복구공사가 빠른 속도로 진척됨에 따라 더 많이 요구되는 용접용산소생산을 위하여 절실히 필요한 산소압축기의 압축기변과 압축실린더의 바킹 같은것은 해방전 일제도 수입해다 쓴것들로서 그것을 자체로 해결하기가 매우 힘들었다.

그러나 가스직장의 당원들은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서는 산속에서도 폭탄을 만드시어 왜놈들과 싸워이기고 나라를 해방하시였는데 장군님의 령도를 받는 우리 당원들은 복구사업에서도 그런 혁명정신으로 일해나가자고 하면서 한결같이 떨쳐나섰다. 그들은 집체적 지혜를 모아 부속품들의 대용재질을 찾아냈으며 보잘것없는 피대선반을 돌려 부속품들을 가공하여 끝내 자체의 힘으로 산소압축기를 살려내고야말았다.

변류직장의 로동계급은 전기설비와 전기선들이 너무나 혹심하게 파괴되고 그것을 복구할수 있는 기술자도 기능공도 없었지만 일제가 없애버린 저항콘데샤대신에 수동신호식 전화기로 동기조절기와 변류기배전실사이의 지하배선망들을 하나하나 잘라내고 해당하는 단자에 련결하는 어려운 작업을 진행하면서 설비들을 복구해나갔다.

합성직장, 전해직장, 질소직장 등 온 공장이 펼쳐나서고 모든 근로자들이 힘과 지혜를 합쳐 전혀 복구하기가 어렵다던 합성직장의 1 500hp압축기도 성과적으로 복구하였다.

이처럼 홍남비료공장 로동계급들의 불타는 충정심에 의하여 공장복구가 빨리 추진되어나갔으며 여러 공정들이 점차 가동하여 화학비료생산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들은 달성한 성과에 자만함이 없이 계속 전진함으로써 주체37(1948)년 5월에는 제2초산공장과 린산전기로를 각각 복구완성하여 생산에 들어갈수 있게 하였다.

화학비료생산공정을 복구하기 위한 투쟁은 순천화학공장에서든 힘있게 벌어졌다. 순천화학공장의 로동계급들은 공장설비들을 파괴하려는 적들의 책동을 분쇄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주야간 투쟁을 벌림으로써 주체34(1945)년 9월 18일에는 첫째 가마에, 10월 20일에는 둘째 가마에, 주체35(1946)년 3월 1일에는 셋째 가마에 대한 화입을 진행하여 생산에 들어갔다.

이와 같이 비료공업부문 로동계급의 드높은 건국열의에 의하여 일제가 혹심하게 파괴한 비료생산부문에 대한 복구정비사업이 짧은 기간에 성과적으로 다그쳐짐으로써 농업생산과 전반적인민경제발전의 기초가 마련되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진행된 새 조국건설시기 자력갱생의 투쟁기풍으로 비료생산을 다그치기 위한 비료공업부문 로동계급의 투쟁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자체의 힘으로 비료공장들을 확장하고 새로운 비료공장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린것이다.

비료공장들을 확장하고 새로운 비료공장들을 건설하는것은 우리 나라 비료공업의 식민지적편파성과 기형성을 퇴치하고 자립적인 비료공업의 면모를 갖추며 인민생활을 높이고 전반적인 인민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요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38(1949)년 2월 최고인민회의 제2차회의와 같은해 9월 최고인민회의 제4차회의를 비롯한 여러 회의들에서 우리 나라 공업의 식민지적편파성과 기술적락후성에 대하여 지적하시면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현존화학공장들의 생산능력을 확장하며 우리 나라에 없던 새로운 생산공정들을 건설할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비료공업부문에서는 우선 이미 복구되어 돌아가고있던 공장들의 생산능력을 확장하고 새로운 비료공장건설을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졌다.

여기서 대표적인것은 홍남비료공장의 접촉류산공정과 초안초산공정 및 4 000hp압축기신설공사였다.

홍남비료공장에서 진행된 접촉류산공정과 초안초산공정, 4 000hp압축기건설공사는 화학비료생산능력을 높여 하루에 75t의 암모니아와 300t의 류안비료를 증산할수 있게 하는 방대한 공사대상들이였다.

접촉류산공정완성을 맡은 로동계급은 1 300m²의 철근콘크리트건물을 일떠세우고 그 내부에 배소로실, 희류산실, 예열기실 등 여러가지 시설들을 갖추어야 하는 어려운 공사를 주체37(1948)년 7월에 착공하여 주체38(1949)년 5월에 완공하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접촉류산공정이 새로 건설됨으로써 더 많은 류산을 생산하여 화학비료생산과 경공업발전에 필요한 농류산수요를 충족시킬수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4 000hp압축기신설공사도 주체38(1949)년 1월부터 착수하여 7월까지 성과적으로 끝내였다.

홍남비료공장에서는 그밖에도 축전지직장을 새로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벌렸다.

축전지직장건설은 교통운수부문과 통신부문에 요구되는 축전지를 충분히 보장하고도

남을 직장을 건설하는 큰 규모의 건설대상이었다. 이 직장을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목공실, 건조실, 기계실, 류산정밀실, 조액실 등 여러 공정들을 짧은 기간내에 일떠세워야 하였다.

이곳 로동계급은 지하에 파묻혀있던 적련화 2 300여매를 회수리용하고 볼트미리제작기를 창안제작함으로써 매일 150%이상의 능률을 올리면서 주체38(1949)년 5월말까지 신축공사를 끝내었다.

비료공업부문에서는 또한 화학비료의 품종을 늘이기 위한 새로운 비료공장건설이 힘있게 벌어졌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청수화학공장의 실태를 깊이 료해하신데 기초하여 주체37(1948)년 2월 북조선인민회의 제4차회의에서 청수화학공장에 우리 나라의 무진장한 석회석을 원료로 하는 석회질소비료공장을 새로 건설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청수석회질소비료공장을 건설하는데서 나선 가장 큰 난관은 기술자와 기능공이 없고 기계부속품이 부족한것이였다. 그러나 이곳 로동계급들은 조금도 낙심하지 않고 공장에 불과 몇명 안되는 기술자와 기능공들로 기술기능전습을 진행하여 우수한 제관공들을 키워냈으며 모자라는 부속품은 유희자재들을 회수하여 자체로 가공보장하였다.

그리하여 주체37(1948)년말까지 건평 2 052m²에 높이 23m의 기본건물공사를 끝냈으며 주체38(1949)년에는 질화로 8대, 분쇄기 4대를 비롯한 수많은 기계들을 설치하고 주체39(1950)년 상반기에 생산공정건설을 완공하였다.

청수석회질소비료공장이 새로 건설됨으로써 화학비료구성에서 석회질소의 비중이 훨씬 높아지고 화학비료공업의 다면성이 더욱 보장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일제에 의하여 심히 파괴된 비료공장들을 복구확장하고 새로운 공장들을 건설하는 어렵고도 보람찬 투쟁을 벌리는 과정에 우리 나라 비료공업부문 로동자들과 기술자들은 혁명적으로 단련되고 귀중한 경험을 체득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우리의 비료공업을 더욱 발전시킬수 있다는 확고한 신심과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미 있던 비료공장들이 복구확장되고 새로운 비료공장들이 건설된 결과 비료공업의 물질기술적토대가 더욱 튼튼해졌다.

비료공업부문의 로동계급은 주체36(1947)년에 화학비료생산량을 주체35(1946)년에 비하여 195.2%로 높임으로써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첫 인민경제계획을 빛나게 수행하였으며 그에 토대하여 주체37(1948)년 인민경제계획과 2개년인민경제계획도 빛나게 수행할수 있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밑에 새 조국건설시기 자력갱생의 투쟁기풍으로 비료공장들을 일떠세운 비료공업부문 로동계급의 그 투쟁정신을 본받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경제강국건설구상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펼쳐나섬으로써 부강번영하는 인민의 락원을 하루빨리 일떠세워야 한다.